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잠재적 선불식 기프트 카드 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에 서명

법안(A.266A/S.145B)에 따라 기업은 고객에게 기프트 카드 사기에 대한 경고 게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기프트 카드 판매 기업으로 하여금 사기 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여 사기꾼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법안(A.266A/S.145B)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증가하고 있는 범죄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휴일은 물론 연중 내내 고객들은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기프트 카드의 형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를 인지하고 이것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안 **A.266A/S.145B**에 따라 일반기업법이 개정되어,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 사기에 대한 경고를 게시하고, 고객이 자신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Kevin Thoma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활용해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 형태의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기프트 카드 사기 위험에 대해 알리도록 기업의 의무를 설정하는 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객에게 사기의 위험을 알리고 뉴욕 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사기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프트 카드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에 쉽게 이용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프트 카드 구매가 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뉴욕 주민을 기프트 카드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